

서양화가 최영훈·조각가 손연자 15년만의 부부초대전

화려한 색채의 변주 ‘꼭 닮았네’

부부로 예술 동지로 동행
‘장미’·‘휴식’ 근작 선 보여
6월 5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갤러리를 찾는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소원도에 전시된 다양한 모습의 사내들이다. 80cm 높이의 인물 조각상 27개로 구성된 작품 ‘여유로움’ 적당히 나온 배, 주머니에 손을 꽂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한 다채로운 표정과 스타일의 각기 다른 인물 군상을 바라보며 관람객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지도 모르겠다.

반면 전시장 안은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다. 장미, 라일락, 백일홍, 복숭아 나무, 홍매화 등 온갖 꽃과 나무가 감각적인 색깔로 화폭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서양화가 최영훈, 조각가 손연자 초대전이 24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 열렸던 신세계 갤러리 초대전 후 15년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부부전이다.

‘동행’이라 이름 붙인 이번 전시는 1965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만난 이후 50여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로, 예술적 동지로 살아온 두 사람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두 사람은 ‘봄, 꿈, 그리고 여유로움’을 주제로 전시 작품을 구성했다.

최 작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화려한 색채’다. 이번 전시작 역시 자유로운 색채의 변주를 통해 생동하는 삶의 의미를 노래한 신작을 100개가 넘는 대작 위주로 선보인다.

화폭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들은 대춘작업실 ‘훈석원(薰石苑)’에서 직접 가꾸며 매일 마주해온 것들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약동하는 기운을 전한다. 작가는 꽃과 나무에 구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대상의 윤곽을 흐리고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 자연스러운 스며들고 번짐의 효과도 부여했



최영훈 작 '봄날의 꿈'

다. 전시작은 정통적인 캔버스에 작업한 작품과 장지를 활용한 작품이 섞여 있어 대비를 이룬다. 주로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장지를 이용한 작품은 독특한 질감을 자아내며 입체감을 부여하고 침착한 맛도 전한다. 최 작가는 “10여년 전부터 조금씩 해온 작업인데 손은 훨씬 많이 가지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근작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캔버스에 유효로 작업한 작품은 화면 전체를 두텁게 바르는 대신 얇게 붓질한 바탕에 포인트 되는 부분에만 두껍게 물감을 발라 대상을 강조했다. 그밖에 각각각색의 장미를 한꺼번에 쏟아부은 듯한 대작 ‘장미’와 신비로운 보랏빛깔의 변주를 느낄 수 있는 ‘라일락’ 등도 눈길을 끈다.

손연자 작가는 IMF 시절 ‘고개 숙인 남자’ 시리즈 등 다양한 인물 군상 작업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해왔다.

이번 전시작은 사람들이 정형화된 삶 속에서 한발짝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다. 작품 ‘여유로움’은 27명의 사내들 위

로 각각각색의 ‘새 떼’가 날아간다. “나이를 먹어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꿈을 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의도다.

작품 ‘휴식’은 30cm 크기의 작은 조각상 50여개로 구성된 작품이다. 어딘가에 걸터앉은 사람, 위를 보는 사람, 아래를 보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등 각기 다른 모습의 그들은 타인이나 사회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두 작품 모두 조각 작품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색채감이 눈에 띈다. 청동과 돌 등을 주재료로 활용했던 작가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합성수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다.

손 작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제 스스로도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는데 이번 작품들은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다”고 말했다.

초대 일시 24일 오후 5시. 문의 062-360-12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손연자 작 '여유로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25~26일 중외공원 스튜디오
한·중·대만 작가 4명 참여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25~26일 중외공원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는 광주의 윤세영, 이정기 작가와 2018년도 첫 해외입주작가인 왕이팅(대만 타이난 사울롱 아티스트 빌리지 교류), 펑루(중국 북경) 작가가 참여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지역 작가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미술관 본관이 자리한 중외공원에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윤세영 작가는 생성과 소멸이 공존하는 응축된 에너지를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으로 표현한 설치작품 ‘생성지점’을 전시한다.

또 이정기 작가는 현재 작업 중인 ‘유물’ 시리즈 중 ‘시대의 초상-아버지를 기록하는 방법’을 선보이고 참가자들은 전시작품 뿐만 아니라 작품제작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왕이팅은 음악을 시각화한 나무 넝쿨과 드로잉의 선들을 이용해 새로운 시각적 멜로디를 창조한 작품 ‘Rhythm of the Time’을 선보이며 펑루는 작가 자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 왕이팅(왼쪽부터), 이정기, 윤세영, 펑루.

신이 보고 경험한 세계를 자신만의 언어로 서술하고 기록해 시각화한 ‘The Clown and the Red Bird’를 전시한다.

부대행사인 크리티크(Critic) 프로그램도 열린다. 26일 오전 10시에는 고영재(광주 롯데갤러리) 큐레이터와 한우중(광주 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가 참여해 입주작가들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4시에는 입주를 마치고 광주를 떠나는 왕이팅과 펑루의 소

회를 들어보는 광주리포트가 진행된다.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는 지역청년작가 입주 및 해외파견, 해외작가 초청 등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작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문을 열었으며 오픈스튜디오 및 발표전 개최, 크리티크(Critic), 간담회, 세미나, 미술현장 탐방 등 다양한 작가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문의 062-613-71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월창작가요제 10팀 본선 무대 경연

26일 5·18 민주광장
강산에 등 축하 공연



▶2018 오월창작가요제 2차 예선 경연 모습.

제8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무대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5·18 민주광장 특별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 13일 본선에 진출할 최종 10팀을 가리는 2차 예선 현장 라이브 경연을 진행했다. 청중평가단 31명이 선정한 2팀과 전문 심사위원 4인이 선정한 8팀, 총 10팀이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본선 무대는 ‘물고기자리’를 부른 가수 이안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월 길 걸어 평화의 숲으로’를 주제로 펼쳐지는 광주 청년 예술

인 합동 공연으로 문을 연다.

지난해 대상 팀인 밴드 파이커의 축하공연과 총 10팀의 경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강산에, 디에이드, 카터가든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본선 무대에 참가한 팀들은 심사를 통해 대상 1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6팀) 등 총 26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ymusicfestival.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강산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료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